

로마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한 렘넌트 마가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창세기 22:16-18, 마가복음 16:15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용되고, 실천되고, 응답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땅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과 세계선교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참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오늘 나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자신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잡혀있는 옛들을 깨뜨리자, 로마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237 선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마가복음은 4 복음서 중에 하나로, 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인들과 당시 로마제국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서를 4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으로 평가하고 있다.

1. 먼저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그의 인생, 즉 마가의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마가는 마가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켰던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던 것이다. 마가복음 14 장 13 절에서 16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가 혹은 마가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다락방이 나온다. 이 큰 다락방이 나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최초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가 된다. 이어서 16 절이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리라’ 현장전도캠프에서는 이런 준비된 제자를 만나야 한다. 이것이 팀사역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지교회이다.

(2) 마가는 어린 시절 로마에서 유학한 엘리트 청년이다. 그것은 ‘큰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가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의 이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나 요한으로 부르기도 했다. 사도행전 12 장 12 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출옥하여 갔던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2 장 12 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집으로 보고 있다.

(3) 마가는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초청한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골로새서 4 장 10 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되어있다. 생질이라는 뜻은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촌수로는 조카뻘이 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4) 이러한 인연으로 제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은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사도행전 13 장 5 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5) 그런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전 13 장 13 절이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왜 마가 요한은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다.

① 근본원인은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본원인은 교만과 불신앙과 율법주의, 인본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마가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인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다. 이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잘못된 영적 교만이다.

③ 마가는 자신의 학벌 때문에 교만하였다.

④ 마가는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보다 바울이 리더가 된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6)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의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된다. 사도행전 15 장 37 절에서 39 절을 보겠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상황을 볼 때 완전복음이 체질화 되지 못하면 서로 옳은 의견을 주장하다가 다투고 갈라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마가는 중요한 두 전도자가 서로 다투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마가는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7) 베드로가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한 사역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베드로전서 5 장 13 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로 표현하고 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8)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유익한 자로 새롭게 쓰임 받게 되었다. 디모데후서 4 장 11 절 하반절에 보

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9) 결국 마가는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다. 빌레몬서 1장 24 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빌레몬서는 로마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가는 로마의 감옥까지 동역했었던 것이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몬 1:24) 마가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마가는 좋은 가정적인 배경과 학벌 때문에 교만하여 복음운동에 쓰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 받았던 렘넬트 출신의 전도자가 되었다.

2. 두 번째로는 렘넬트 전도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말씀들이 바로 마가를 변화시킨 완전복음의 말씀들이었던 것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에 담겨 있는 중요한 복음적인 흐름을 간단히 전하고자 한다. 성도분들도 마가복음 전체를 다시 읽으시면서 스스로 이 4가지의 흐름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1)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Nobody의 절대언약을 증거하고 있다. Nobody의 언약은 무엇일까? 죄인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마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Everybody의 복음을 알았던 것이다. 마가복음 2장 17 절 말씀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 마가는 No-way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의 울무, 틀, 함정과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사탄과 마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7 절에서 18 절 말씀을 보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들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오직 완전복음의 제자들만이 중독문제,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정신문제, 동성애, 무속, 점술, 우상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Every-way의 절대제자가 될 수 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찾는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드린다.

(3) 마가는 No-time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마가복음 12장 18 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No-time의 응답이다. 24시간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 이 땅에는 없는 No-time 즉 25, 영원의 비밀이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의 응답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everytime의 응답이다.

(4) 마가는 세상에는 Nowhere의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Nowhere는 Everywhere로

변할 것이다. 오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저주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 절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3장 13 절에서 15 절은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nowhere의 현장을 everywhere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당시 세계최강의 제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5가지 기도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 있었다. 그 5가지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5가지 기도컨텐츠이다. 여러분도 이 5력을 위해 무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마가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1. 첫 번째, 로마복음화를 미리 보기 위해서는 영력이 필요하다. 영력이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면 된다.

2. 두 번째, 미리 갖기 위해서는 지력이 필요하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가 요한을 미리 로마에 보내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다.

3. 세 번째, 미리 누리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다.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마가는 선교도 따라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발견하자 로마까지 정복할 체력을 주셨다.

4. 네 번째,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다. 마가는 이미 부모님이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부모님들이 그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바울과 마가의 팀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경제력을 주셨다.

5. 다섯 번째, 미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주신 인력의 축복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마가 요한처럼 복음으로 거듭나고, 5력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의 많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치유하고 237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성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으로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참된 천명, 사명, 소명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